

똑  
똑  
씨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35세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실름.

성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 "그녀의 남자"

글 \_ 김희정 · 대외협력과 · khj@kisti.re.kr



하늘하늘 부드러운 바람, 손등을 간질이는 새하얀 봄 햇살은 연인들의 마음을 화들짝 흔들어버리는 백발백중의 묘약이다. 똑똑씨의 집요한 의도와 주도면밀한 작전 하에 국가지정 공식커플로 만천하에 소문이 난 똑똑씨와 미모양 커플 역시 이 화창한 봄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산행을 하기로 날을 잡는데.

약속장소에 한 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전전궁궁 전전반반 미모양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똑똑씨 앞으로 미모양,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등장한다. 산뜻한 병아리색 등산화에 빨간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 쓴 자태는 검고 두꺼운 겹질 밖으로 막 솟아나온 초봄의 연두빛 새싹보다도 훨씬 더, 아니 온 지구상의 새싹을 모조리 뽑아온다 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큼하기 이를 데 없다. 똑똑씨, 말도 못한 채 얼굴만 벌겍게 달아오른다.

“어머, 똑똑씨. 왜 그러고 서 있기만 해요. 와... 날씨 정말 좋다. 그죠?”

순간, 똑똑씨의 강마른 손바닥 안에 자신의 작은 손을 꼭 집어넣는 미모양. 보통 여우가 아니다. 미모양의 불여우 짓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똑똑씨.

“역시 봄엔 산에 와야 된단니까. 진짜 공기 좋다. 이게 피... 맞아, 피톤치드라고 하는 거 맞죠? 이게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부드럽고 따듯한 미모양의 손 감촉에만 온통 정신이 팔린 똑똑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횡설수설이다.

“피톤치드가 냄새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시켜 주니까 사람 몸에는 좋은데요. 원래는 살충제거든요. 그러니까 숲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많으니까 그걸 죽이려고 나무들이 살충제를 마구 내뿜어요. 그럼 사람들 피부가 좋아지구요, 심폐기능도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사스(SARS)가 생겨요. 숲이 파괴되면 유해 미생물이 엄청 나오니까 사스가 자꾸만...”

“똑똑씨! 어디 아파요? 지금 무슨 얘길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미모양의 고함소리에 퍼뜩 정신이 든 똑똑씨. 순간, 발을 헛디뎠더니 몸이 기우뚱 기울며 미모양을 옆으로 미는 형국이 된다.

“악!!”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비탈길 밑으로 넘어진 미모양.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비호처럼 날아가 미모양을 품어 안은 남자는 똑똑씨가 아닌 바로 조인성을 닮은 낯선 킹카!! 더구나 미소양과 킹카 순간적으로 짜인한 표정까지 주고 받는게 아닌가.

“어머, 오빠!”

“어머, 미모야!”

이 모양을 목격한 똑똑씨, 눈이 붕어처럼 튀어나온다. 똑똑씨를 발견한 미모양, 황급히 낯선 남자의 품에서 빠져나와 상황을 수습한다.

“어.. 똑똑씨. 예전에 알던 오빠예요. 오빠, 이 분은 똑똑씨인데, 그냥... 아는 분이야. 어쨌거나 오빠 덕분에 하나도 안 다쳤네. 고마워. 다음에 또 봐 안녕. 똑똑씨 그만 가요.”

미모양, 당황하는 빛이 역력한 채로 서둘러 앞서간다.

곧 산 정상에 도착한 미모양과 똑똑씨. 야호를 부르고 근처 정자에 앉아 음료수와 김밥을 먹고, 맑은 공기를 들이켜는 것까지는 다른 커플들과 다름이 없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오랜 침묵 끝에, 똑똑씨 어렵게 말을 꺼낸다.

“미모씨, 블랙홀이 왜 생겨나는지 알아요? 그건 폭발 때문이에요. 태양보다도 30배나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이 생명을 다하는 순간, 가장 아름답고 거대한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 내는 게 바로 블랙홀이거든요. 블랙홀의 흡입력은 정말로 대단해서 지구를 엄지손톱만 한 크기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중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블랙홀에 들어간 건 세상 그 어떤 것도 결코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모씨를 처음 본 순간 제 마음 속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생애 단 한번 있을까 말까한 화려한 폭발이 말입니다. 그리곤 미모씨라는 블랙홀이 생겼죠. 블랙홀의 그 엄청난 중력에 갇혀 지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속에 갇히게 된 걸 언제나 신께 감사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좀 힘이 드네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하곤 한 시간을 같이 있어도 일 분 같고, 또 어떤 사람하곤 일분을 같이 있어도 한 시간 같다고요... 지금까지 미모씨와 함께 한 모든 시간들은 그렇게도 짧았는데, 오늘은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와는 달리 유난히 조리 있고, 유난히 논리 정연하면서도 어딘가 처량하기까지 한 똑똑씨의 장광설에 미모양 아무런 반응이 없다. 평소와는 달리 잠자코 듣기만 하던 미모양. 마침내 입을 연다.

“저... 똑똑씨, 실은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요. 할... 말이 있어요.”



<똑똑씨의 약학대사익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